

방사선작업종사자 건강진단 지원 - 선량한도를 초과하는 자에 대한 염색체 변이검사 실시 -

협회는 방사선작업종사자중에서 선량한도를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 금년부터 건강진단(염색체 변이검사)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개인의 방사선피폭선량은 방사선방호의 기본이 됨에 따라 정확한 방사선피폭선량의 판독 및 기록유지는 원자력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방사선작업종사자의 보건관리 측면에서도 국가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아울러 원자력법에서는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적 선량한도치(외부피폭선량과 내부피폭선량을 합한 피폭방사선량)을 제정하여 그 기준치에 근접하거나 초과하였을 경우 특히, 선량한도 초과자에 대한 초과원인 및 경위, 방사선 장해유무 등을 평가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와 함께 작업전환, 재발방지대책 수립등을 강구토록 하고 있으며, 연간 50mSv를 초과한 자에 대하여는 건강진단등을 실시토록 하고 있다.

이에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기록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협회에서는 원자력법에서 정한 선량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방사선작업종사자에게 피폭선량값을 사전에 통보하여 업무전환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선량한도 예고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직업상 저 선량의 방사선에 장기간 피폭되는 집단에서 염색체 변이빈도가 증가한다는 것이 보고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선량한도 초과자에 대한 방사선장해유무등의 평가의 일환으로 건강진단 검진상황 중 선량한도 초과자에 대한 염색체 변이 검사를 무료로 지원키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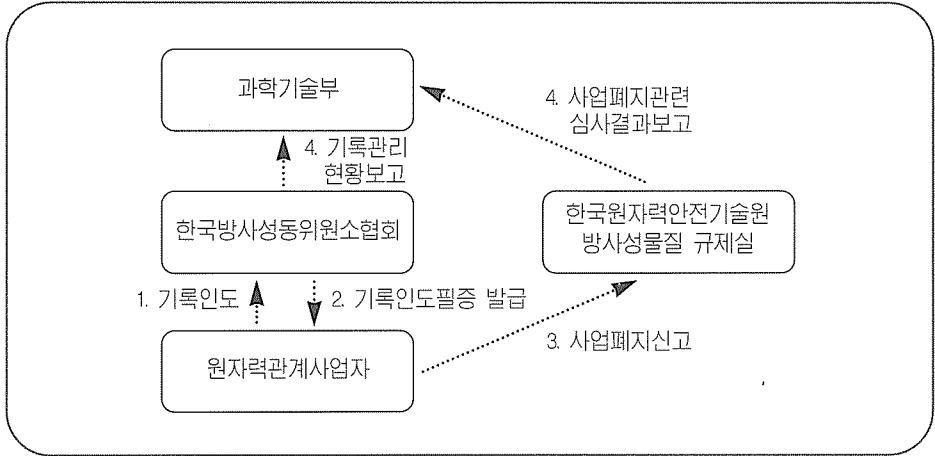
이를 통하여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피폭에 따른 보건상 안전성 평가 체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담당자 : 정보관리팀 임기중 ☎ 02-3411-6496

사업폐지 또는 허가취소 등에 따른 업무절차 안내 - 협회에 “건강진단 기록” 및 “오염상황측정 기록” 인도 -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사용하는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사용에 따른 기록관리 및 비치의 의무가 있으나 최근 사업(사용) 폐지 기관이 당 협회에 원자력법에 따른 기록인도시 기록이 분실되거나 보존되지 않아 향후 방사선장해유무 판단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는 건강진단 기록등의 보관에 문제가 많이 발생되어 왔다. 따라서,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사용하는 원자력관계사업자는 관련기록을 분실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래와 같이 사업(사용)폐지에 따른 업무절차를 소개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체계도



□ 사업(사용)폐지에 따른 업무처리 절차

- 가. 허가 또는 지정이 취소(사용금지 포함)되거나 사업또는 사용을 폐지한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폐기시설등 건설·운영자에게 폐기 또는 양도등 필요한 조치(방사성물질에 의한 오염제거등)를 한다.
- 나.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건강진단 기록 및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한 오염상황의 측정기록을 기록관리 기관인 우리 협회에 인도한다.
- 다. 협회에 기록을 인도한후 협회로부터 기록인도필증을 발급받은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별지제100호 서식인 허가등취소·사업(사용)폐지의 신고서를 작성하고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제출한다.
 -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성물질등에 관한 조치사항
 - 방사선작업종사장의 건강진단기록등의 인도에 관한 사항
 -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협조 안내

환경부에서는 상수원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유류·유독물 및 방사성물질등의 수송차량에 대하여 팔당호등 주요 상수원 주변도로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수질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계도·홍보기간을 거쳐 시행하였고 2000. 12. 1부터 통행제한도로 위반차량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한편, 협회나 관련단체등의 적극적인 협조로 통행제한규정이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지난 2월 특별단속기간중 일부 유류차량이 상수원지역 통행제한도로를 운행하다가

적발되어 고발조치되고 교통방송 및 언론매체에 보도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특히, 수질환경보전법에 의거 통행제한도로로 지정된 20개 도로가 통과하고 있는 팔당호 등 8개 상수원은 대체 상수원이 없고 급수 인구가 많으며 오염사고로 급수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국가적 재난 사태로 악화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수도권 국민의 생활용수 공급원인 팔당호(한강)를 비롯한 낙동강, 금강, 영산강권역 주요 상수원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될수 있도록 유념하시어 통행제한 도로로 운행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자빔수술법으로 척추종양 제거 시술후 곧 일상생활 복귀

뇌 종양에만 쓰이던 방사선 수술법이 척추 종양에 시도돼 성공했다. 인제대 일산백병원 뇌신경센터(소장 황충진 교수)는 광자 빔 수술장비인 노발리스(Novalis)를 이용, 폐 뒤쪽의 척추에 생기는 종양 수술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노발리스 광자 빔 수술장비는 기존의 방사선 수술 장비(감마나이프)와 달리 뇌 종양의 크기나 위치에 따른 제한없이 여러 번으로 나눠 수술할 수 있다. 이번에 성공한 수술은 1번 흉추 및 요추에 생긴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 가슴을 절개하지 않고, 피부 표면에 특수구슬(marker)을 부착하고 적외선 카메라가 이를 통해 종양의 위치를 컴퓨터에 전송한 다음, 방사선을 쬐어 종양 조직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환자는 방사선이 쬐이는 동안 누워 있으면 되며, 시술 후 바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다. 황 교수팀은 “곧 전립선 수술에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2001/04/12 41면)

암을 극복하자 - 유 방 암 -

“아이 낳아 모유로 정성껏 키운 것도 죄가 됩니까.” 유방암 진단을 받은 어느 45세 여성의 울음섞인 푸념이다. 대개 유방암 선고를 받은 사람들은 암에 대한 공포와 여성으로서 정체감을 잃